

최근 한국 언론계는 11월1일 문화일보 창간과 때를 같이한 서울방송 개국 소식으로 한차례 혼란을 겪고 있다. 그것은 이것이 언론자본의 경쟁시대 도래를 알리기도 그 동안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된 한국의 언론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게 파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언론자본의 성장과정과 함께 한국 언론자본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자본과 언론의 관계 인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근대시민혁명과 언론

서구에서 근대의 언론은 시민혁명의 촉진제였고 그와 더불어 성장하였다. 그리고 혁명의 결과 형성된 자본주의 사회구성은 언론의 성격을 규정짓는 토대였다. 봉건사회 말기에 등장한 신종자본가들에게 정권경쟁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토지에 묶여있었기 때문이다. 농노들을 풀어주고 있는 것은 영주들이 아니라 농지였다. 그래서 농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자본가들에게 급선무였다. 자본가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사상가들은 혁명적인 사상을 다루어 발표하였다. 그러면 이 소식을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농노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신문, 팸플릿, 전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언론매체가 없었다면 시민 혁명은 훨씬 후에 가능했을 것이다.

파행보도와 독점성장의 암거래

학술특집 — 언론자본의 형성과정과 특징

재력있는 자본가들은 인쇄시설을 갖추고 언론매체를 발행하였고 지식인들은 거기에 기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은 성공하여 봉건사회는 가고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2. 자본주의와 언론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선전선동매체로 기능하던 언론은 이제 자본주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되었다. 목표가 달성된 이상 언론에 부여된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상품으로서의 언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용가치와 가치를 갖는다. 언론은 생산자가 아닌 독자의 사용가치를 위해 생산되며, 그것이 시장에 나왔을 때 가치를 갖는다. 독자들로부터 사용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언론상품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언론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만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이다.

경쟁은 집중과 독점으로 진행된다. 여타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언론기업도 소수의 독점적 대기업으로 편성된다. 즉 하나의 순수한 언론기업이 이같은 과정을 밟는 것은 드문 일이고 대개는 독점자본이 언론매체를 소유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언론은 독점자본의 대변인으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자본의 운동법칙으로만 본다면 언론기업은 자본의 입장에서 그다지 매력있는 투자대상은 아니다. 자본은 최대의 이익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대체로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평균적인 이익을 보장받는 형태로 조절된다. 그러나 언론기업은 평균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수의 신문사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주인이 바뀌는 것을 자주 목도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 실제로 가장 많은 당기 순이익을 낸 곳이 30억 정도이고 적제는 1~2억, 심지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손해를 감수하는 신문사도 있다. 30억 정도면 괜찮다고 여길런지 모르지만 같은 기간에 삼성물산이 130억의 당기 순이익을 낸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자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용추구에 앞서 부르주아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대량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부르주아 언론에 부여된 주요 과제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량생산을 낳는다. 대량생산은 대량소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이어주는 것이 언론이다. 그것은 광고 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하였으며 농촌가정에 까지 무선전화를 사용하였다. 이같이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언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존재이다. 말하자면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기간산업과 다른 점은 대개 개별 자본이 투자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별 자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투자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뿐 아니라 당장에 계열기업의 방패막이로서, 그들의 홍보매체로서 훌륭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론은 독점자본의 대변

자본과 언론의 우월적 지위이다. 3. 한국사회와 언론 한국의 자본주의는 시민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국가의 의해 이식되었다. 따라서 언론의 존재양식도 선진자본주의 국가와는 사뭇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대량소비를 창출하는 역할은 변함없지만 그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제국주의국가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다. 미국적인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이 강요되고 있으며 일본문화가 침투하고 있다.

한지의 경쟁상대에서 제외된다 특수주관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본력이 형편없이 뒤지는 비관적인 세력의 언론을 차단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이밖에 정권은 은행유지를 위한 제조업체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해주고도 세계상의 혜택도 주었다. 게다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70년대 중반까지 기자들의 봉급은 형편없었다. 면세점 이하가 수두룩 했고 무보수 기자까지 있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 임금인상투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록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신문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은 뻔하다.

그렇게 해서 적자경영에 허덕이면서도 신문사의 사욕은 변질나게 지으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80년대에는 경쟁자들을 더 줄여줌으로써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였다. 성장배경이 이와 같은 신문사들이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자명하다.

이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한국적인 경쟁의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쟁의 승패는 처음부터 결정되었다 할 수 있다. 이미 탄탄한 기반을 갖춘 신문사에 필적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신생 신문사 치고 적자에 허덕이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민주일보도 이미 문을 닫았다. 그리고 웬만한 재력이 아니고는 신문사설립을 염두도 내지 못한다. 더구나 CTS도입이나 지방방송 설립이나 하여 경쟁의 대열에 끼어줄 수 있는 자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수 있다. 방송에서는 서울방송의 개국과 향후 CATV의 등장으로 새로운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일반 제조업에서의 경쟁은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언론에서의 경쟁은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저질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한국언론의 전도가 지극히 흐린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김동민
(한양대강사·언론학)

정부, 차관배정 시설투자로 언론 기업화 고무 국가종속 언론자본, 지배 이데올로기 유포에 한몫

방송사업의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조건에서인지 보편적인 현상인가? 자본가들은 왜 이같이 출혈을 감수하면서 신문사를 운영하는가?

'군사부일체'나 '총화'나 하는 봉건적 가치 대신에 '자유와 평등'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을 가르치고 해가죽을 조정하는가 하면 대량 이데올로기를 차단하기도 한다.

소 등 오락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서 상품을 구매할 뿐 아니라 소와 드라마 등을 보면서 소비지향적이 되어간다. 예를 들어 드라마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가구·생활용품 등을 보면서 구매의 충동을 받는다. 최소한 매일매일 반복해 보면서 그러한 물건들에 친숙해진다. 무선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드라마에서는 모든 전화장면을 무선전화기로 처리

인이라고 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정상적인 단계를 거친 사회에서는 독점자본이 국가를 종속시킨다. 따라서 독점자본의 소유인 언론은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한다. 그렇다고 국가가 언제나 기를 못 파는 것은 아니다. 개별 자본이 이용추구에 눈이 어두워 질서를 어지럽힐 때면 국가는 총자본으로서 제재를 가한다. 따라서 언론도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발전의 과거와 미래'를, 김일평 교수가 '중국의 개혁과 한반도'에 관하여 발표한다. 제24회 모의민사재판원 12일, 도서관 시청각실서 법대 민사법학회 주최로 '제24회 민사재판원'이 오는 12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 모의재판은 폐수로 인해 양식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공해소송의 제 문제'를 주제로 현역 법관들이 직접 배역을 맡아 화생들과 논쟁을 벌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2부 홍일표 부장판사, 이규룡, 박해식 부석판사가 직접 판결을 맡으며, 소승대리인으로 양종관(법·4), 김경진(법·3)이 원고 변호사를, 김근식(법·4), 장호



지폐로 도배하는 이유는?

70년대말 살인적인 물가 폭등이 계속된 아르헨티나의 어느 한가정이 지폐로 집을 도배한 것이 해외화제로 난 적이 있었다. 물가 인상률이 1백% 이상 1천%까지 미치자 종이보다 화폐로 직접 도배하는 게 더 경제적이란 판단에서 그러했으리라.

요즘 우리나라의 물가인상을 보더라도 '지폐로 도배를 해야 할 해프닝'이 내일 모래쯤 일어날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이미 생활주변에서 많이 확인된 저택형 시장바구니에 담기는 양과 화폐가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물가인상의 심각성은 더해만 갔다.

대독이 해외에서는 소비자 물가지표에 들어가는 빵값, 집값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가히 기하학적인 퍼센트로 물가인상율이 기록될 것이다. 전·월세값 폭등으로 조금이라도 더싼 지하실 방을, 번두리지역을 전전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수십명에 달했을 때 민초들은 숨쉬기조차 감감함을 느꼈을 것이다. 굳이 집·평값의 인상요인을 물가지수로 넣지않은 인상율만도 정부가 발표한 지표상으로 10%를 넘어가는 형편이니 그러한 현상은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또 인상바람이 불고있다. 정

부의 공공개발 택지의 선납 대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 연기방안에 따라 아파트분양가가 인상되고,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민초가 아닌 행정당국자에게 그 여과가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다. 또 내년 선거에



대비해 엄청난 선거자금을 모으고 있는 정부·여당은 물가인상의 심각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가? 국민들의 소비성향과 저축기피심리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정부의 무원칙한 경제정책과 음영적인 자본호를 때문이다.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들의

경제불안 심리를 부추겨 투기현상을 일으킨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의 유보가 그 일단이다. 음성자금의 흐름과 토지·증권 투기가 유발한 인상요인과 함께 물가인상을 염려한 경제계·학계의 충고에 이렇듯하지 않고 성장위주정책들만 펴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국제수지악화와 인플레이션은 경제구조상의 문제로 그 본질을 보아야 한다. 해방후 한국경제구조의 심화된 모순을 무시한 재벌위주의 외형적 성장정책을 고수한 것이 현재의 물가불안과 인플레이션, 투기 등을 조장한 법인이 아닐 수 없다.

이의 해결은 무엇인가? 전면적인 경제구조조정과 투기 및 음성자본의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눈앞의 문제만 해결 할것이 아니라 사대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극복해 나갈 시민운동이나 압력수단이 민초들의 손에 있어야 최소한 민초의 이익에 맞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정보

한의대학생회 특강 오늘부터 우주에 대해

한의대 학생회는 오는 11.12일, 18일부터 20일까지 '우주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응문 선생의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가깝지 않았던 주역(周易)에 대해 '우주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물리학, 동양철학, 종교학 전반에 걸쳐 우리 학문으로 소화해 내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강의를 하는 이응문선생은 85년 주역연구를 시작하여 대산 김석진 선생의 문하에 있으며 홍사단에서 주역(周易)기초강

의와 현 홍역(洪翼)학원 학술위원을 맡고있다.

이번 실시될 특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일: 주역의 유래와 도서의 출현 ▲12일: 오행생크의 이치와 효용 ▲18일: 팔괘의 성립과 선후천 사상 ▲19일: 역학원리와 응용 ▲20일: 환역과 주역

사과연 '국제학술세미나' 15일, 본관2층 대회의실서

본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오는 15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김일평교수와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이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우미화씨가 초청되어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미화씨는 '중·한 경제 관계

의와 현 홍역(洪翼)학원 학술위원을 맡고있다.

이번 실시될 특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일: 주역의 유래와 도서의 출현 ▲12일: 오행생크의 이치와 효용 ▲18일: 팔괘의 성립과 선후천 사상 ▲19일: 역학원리와 응용 ▲20일: 환역과 주역

사과연 '국제학술세미나' 15일, 본관2층 대회의실서

본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오는 15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김일평교수와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이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우미화씨가 초청되어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미화씨는 '중·한 경제 관계

의와 현 홍역(洪翼)학원 학술위원을 맡고있다.

이번 실시될 특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일: 주역의 유래와 도서의 출현 ▲12일: 오행생크의 이치와 효용 ▲18일: 팔괘의 성립과 선후천 사상 ▲19일: 역학원리와 응용 ▲20일: 환역과 주역

사과연 '국제학술세미나' 15일, 본관2층 대회의실서

본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오는 15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김일평교수와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이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우미화씨가 초청되어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미화씨는 '중·한 경제 관계

자동차한국의 자부심을 펼쳐갈 마북리연구소 — 우리의 손으로 세계 제1의 자동차를 만든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마북리연구소의 불빛 —

첨단 자동차기술을 향한 우리의 꿈이 영원하듯
오늘도 마북리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북리연구소의 500여 연구진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이겨내며 국내 최초로 알파엔진과 트랜스미션의 독자개발에 성공, 자동차한국의 긍지를 드높였습니다. 인간의 생가대로 움직이는 '꿈의 자동차' 시대를 위해 자동차의 신기술을 펼쳐가는 마북리연구소 사람들 —

이들 모두의 노력들이 자루촌 곳곳에 자동차한국의 자부심을 펼쳐가는 원동력이며 세계 자동차무대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미래의 첨단 자동차기술은 우리 손으로 —

세계 자동차무대를 이끌어 갈 이상적인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전기, 수소 등 배기가스가 없는 대체연료 개발, 엔진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연소, 유체, 유동의 연구,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전자제어기술,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초경량 신소재의 연구 등 내일의 첨단 자동차는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산학협동을 통하여 앞서는 자동차기술을 펼쳐갈 것입니다.

꿈과 패기의 젊음은 영원하다.

다음 세기의 첨단 자동차기술을 펼쳐갈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꿈과 패기가 있는 젊음은 영원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젊은 그대들의 힘찬 기상이 세계 제1의 자동차한국을 빛낼 밑거름을 믿으며 좋은 차의 개발과 공급으로 이땅에 풍요로운 자동차문화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현대자동차